

학술분야소식

◎ 협회지 편집위원회 개최

대치협에서는 8월 2일 서울대 앞 낙산가든에서 집행부 교체후 첫 편집위원회를 가졌다. 그날 논의 되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일시 : 1988년 8월 2일(화) 19 : 00

장소 : 낙산 가든

참석 : 이종훈. 남동석. 권혁준. 김관식. 김여갑. 김평일. 박동수. 홍삼표(이상8명)

1. 개회선언 : 남동석 위원장

2. 부회장 인사 : 이종훈 부회장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휴가중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계의 발전을 위하여 협회지편집위원회 위원을 수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에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앞으로 알찬 협회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위원 소개 : 남동석 위원장

위원장 인사 : 남동석 학술이사

다소 장소가 미흡한데 대하여 양해를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개진하시어 회원이 바라는 협회지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토의사항

1) 협회지 편집에 관한 개선 방안

☞ 남동석 위원장 : 오늘 회의에서 협회지 특집 및 편집 전반에 관하여 토의하기 보다 우선 급한 8월호 협회지 발간 편집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을 참조하여 협회지 편집현황 및 예산관계를 설명하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김평일 위원 : 그간 협회지 발간을 위하여 노력한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일관성 있게 발간되어 온점을 높이 평가하며, 편집방향을 명확하게 할려면 한두차례의 회의보다 편집, 인쇄 및 특집방향에 대해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함.

☞ 김관식 위원 : 편집계획을 미리 세워 집필기간을 2-3개월전에 의뢰하면 큰 도움이 되겠음.

☞ 홍삼표 위원 : 협회지는 보수교육적인 면도 있다고 보며, 원저 선정에 있어서 통일성을 강구해야 될것임.

☞ 박동수 위원 : 협회지원비와 광고충당비율은 어느 정도며, 원저를 게재할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치과계에 관한 잡지는 크게 어떻게 구분할수 있는지?

☞ 남동석 위원장 : 협회지 발간 예산중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 : 1정도이며 치과계에 관한 잡지는 크게 협회지, 학회지, 상업지로 구분할수 있다고 답변함.

☞ 김여갑 위원 : 협회지가 개원의 내지 회원을 이끌어가고, 분과학회 발전의 바탕이 되도록 분과학회 고정란 확대를 바라며, 특집에 관해서는 보수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생각이지만 실제적으로 임상에 이용할수 있는 제목을 요구하는데 부응하여 협회지가 개원의의 질을 높일수 있는 특집의 방향을 전문화 시킬수 있는 방안과, 치과계의 당면문제를 특집으로 다뤄야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깨번호 등은 협회지 규정을 제정하여 따르게 하는 것이 좋겠고, 협회지 광고 앞면 게재 문제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해야겠음.

☞ 남동석 위원장 : 협회지의 제작, 편집을 맡은 실무책임자로서 평소에 느낀 생각으로는, 협회지는 기관지로서 기능 및 품위를 다하고 있는가 할때,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지못하여 이를 개선하여야겠고, 광고 앞면 게재문제는 상업지는 대부분 앞에 나오는데 잡지발간비 전액을 충분히 충원해 주지 못하는데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회원들의 의사를 다소나마 반영하겠다.

또한, 협회지 지방 순회시 회원들의 여론이 읽을 거리가 없고, 실용성(효용성)이 없다는 의

견을 들었다.

상업지가 아닌 이상 제작상의 문제는 있겠으나, 원저 편수를 반정도 줄이기도 이승루주간과 합의를 봤다.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여준 사안과 본인의 생각이 대동소위함을 느꼈다. 앞으로 협회지 편집방향으로는,

- (1) 표지 목차 변경 문제
- (2)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컬럼란 신설 문제(예 : 치정회 의견, 의료보험 의견등)
- (3) 보험 청구 및 환자 진료 사례보고란 신설문제
- (4) 공중보건치과의사 코너 신설 문제
- (5) 지질 개선 관계
- (6) 동창회 관계, 기별 동기회 모임 소식관계

- (7) 분과학회 소식란 문제
- (8) Computer 코너, 사진관계 코너 등 편집방향을 새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한후, 위원들의 의견을 타진한바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김평일 위원 : 회원들의 관심을 끌수 있게, 개업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함.

☞남동석 위원장 : 환자들도 읽을수 있게끔 진료실 및 휴게실에 책을 전시해 주기 바람.

☞김평일 위원 : 부정의료업자에게 진료를 받을 시 생기는 부작용등을 사진을 첨부하여 게재하면 환자의 경각심도 고조되고 많이 볼것이라고 설명함.

☞남동석 위원장 : 앞으로는 필자를 개발하고, 원로와의 대화, 사제간의 대화등 대담 기사를 게재하여 읽을 거리를 확보할 계획이며,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겠음.

☞박동수 위원 : 치의신보 및 협회지를 각치과 대학 학생회 및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송부하여 홍보, 흥미를 제고시키기를 바람.

☞남동석 위원장 :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2) 기타 결정 및 토의사항

- (1) 특집은 당분간 존속키로 함.
- (2) 8월호 특집제목을 1주일내에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3월내지 1년분단위 편집계획을 세워서 발간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키로 함.

(3) 9월호에 세계최초 여자치과의사를 소개할 계획임을 남동석 위원장 설명함.

(4) 투고 규정을 손질하여 그 규정에 맞지 않을때에는 게재 않기로 함.

(5) 현대의학사에서 상업학교 출신 직원을 채용하여 훈련과정을 거쳐 전문도사안사로 활용키로 함.

◎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집담회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姜九漢)은 오는 9월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Renaissance 호텔 회의실에서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보수교육이 인정되는 이번 학술집담회의 연자는 장영일교수로서 연재는 Internal Derangement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이다.

다음은 9월 1일에 있을 강연내용의 초록이다.

악관절 기능장애는 성인의 4-28%가 앓고 있는 흔한 임상문제이다.

악관절 기능장애의 기본증상은 동통, 관절잡음, 근육통, 악개구제한 등을 포함한다. 이증상을 갖는 환자는 악관절 동통 기능장애 증후군으로 분류된다.

악관절 동통 기능장애 증후군의 원인에 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악관절 기능장애가 일차적인 악관절 질병의 원인이 아니고 심리적인 자극에 따르는 저작근 경련과 같은 관절의 비정상에 의해 야기된다는 설이 있는 반면에 비정상 교합으로부터 생기는 근육경련에 의해 야기된다는 설이 있다. 악관절 기능장애의 원인에 관한 이론이 다양한 만큼 치료법과 환자반응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악관절 조영술(arthrography)은 악관절 증상이 있는 환자중에서 관절원판을 포함해서 관절내 비정상 증례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잘 나타낸다. 이러한 악관절내 비정상을 일반적으로

內障(internal derangement)이라 불리운다. 가장 흔한 관절원판 비정상은 관절원판의 전방전위(anterior meniscus displacemen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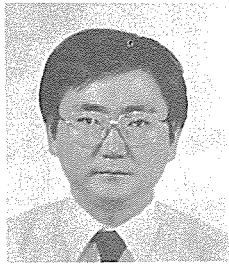
악관절 기능장애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관절의 비정상(근막동통) 또는 관절내 비정상(관절원판내장)으로 야기되었는지 또는 두가지 원인을 포함하고 있는지 감별을 요한다.

최근에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과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은 관절내 관절원판 비정상을 보이는 비침습성 정확한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본 학회 9월 학술집담회에서 다루워질 연재의 내용은 악관절의 정상해부와 생리, 악관절 증상 환자중 흔히 있는 여러가지 관절내 비정상을 설명하는데 있으며 이와같은 비정상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악관절 조영술, 전산화 단층촬영과 자기공명상 예들을 소개하는데 있다.



〈姜九漢회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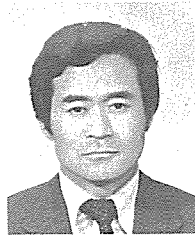
張英一교수〉

또한 동학회는 전공의 학술발표회를 매년 개최하면서 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전문을 수록한 전공의 학술발표집 제2집을 작년에 이어 곧 발간할 예정인바 이 발표집에는 23편의 연구내용이 게재되어있다.



〈사진은 전공의 학술발표회를 마치고〉

◎ 대한치과기재학회 학술집담회



〈李鍾律회장〉

대한치과기재학회(회장李鍾律)에서는 적극적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1988년도중 2회에 걸쳐 학술집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이에따라 9월중에는 서울대 치대 세미나실에서「Pin Amalgam」에대한 업정(李鍾律회장) 문 교수(서울대 치대)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며, 11월에는 역시 서울대 치대 세미나실에서「치과재료의 인체 위해성」에대해 김경남교수(연세대 치대)의 강연이 각각 있을 예정이다.

동학회에서는 금년도에 두차례에 걸친 학술집담회를 계획하고 있어 회원은 물론 많은 치과의사의 참석을 바라고있다.

◎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 연수회 개최



〈李義雄회장〉

대한악안면 성형외과 학회(회장李義雄)에서는 지난25일 Hilton호텔에서 4회 Symposium을 개최한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Arthroscopic Surgery에 대한 연수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다.

9월중에 열릴 정례학술 집담회 예정을 변경하여가질이번 연수회는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Dr. Moses, Dr. Murakam : 김현곤교수가 이번 행사를 맡게된다.

◎ IADR, JADR과 학술교류증진 및 1995년 IADR 한국 유치협회의 및 긴끼도카이도 학술대회와 오-사가 치대에서 특별강연

IADR한국지부 梁회장은 지난 18일~21일까지 있었던 국제치과연구학회 IAD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ntal Research)의 일본부회(JADR)회장단 회담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지부회(IADR Korean Division)과의 상호 학술 교류실시 및 증진방안 검를 위해 3차에 걸쳐 회담을 하였다.

그 결과 1995년 IADR세계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는데 일본부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에 합의하였다.



<1988. 7. 19. 일본국 東京醫科大學 小會議室에서 JADR(國際齒科研究學會日本部會)會長團과 IADR 韓國支部會 會長團과의 會誼 사진: 좌로부터 쓰네미쓰 아끼라 JADR 會長, 오아시 마사요시 次期會長, 미우라 후지오 直前會長, 사사키 사토시 사무국장, 梁源植 IADR한국 支部會 會長, 鄭鍾平 IADR 한국지부회 총무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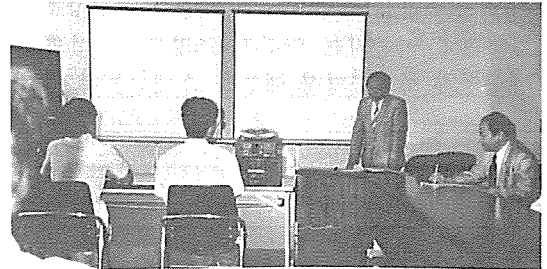
양원식교수는 7. 23. 대판에서 열린 제30회 긴기도카이(近畿東海)교정치과 학술대회에 한국측 수석 대표로 참가하여 강연한바있는데 30회 학술대회의 목적은 『21세기 치과교정학을 향하여』라는 주제아래 『한국의 치과대학교정학 교육, 연구의 현황 및 전망』이라는 소제목으로 강연과 종합토의를 하였다.

이어서 26일과 27日에는 대판치과대학에서 『진치개교와 치료에 관한 교정학적 고찰』과 아울러 『한국의 치과교정학의 현상과 MEAW Technique에 있어서』라는 연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번대회에서 한·중·일 3국의 교정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심포지움의 연자로서 장차 3국의 교정학 발전을 위해 상호 학술, 정보 교환과 학술 교류를 갖기로 합의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교정학 연구를 위한 문헌교환 및 장차공동연구를 지향하기로 함에 합의하였다.

현재일본의 교정학은 눈부신 발전을 보여 대판대학치학부의 교정과만 보더라도 환자의 진



<1988. 7. 24. 大阪國際交流 Center에서 第30回 近畿東海 矯正 齒科學會 學術大會심포지엄에서 『21世紀의 齒科矯正學을 向하여』에 대하여 강연하는 梁源植 教授>



<大阪大 齒學部에서 講義하는 梁源植교수>



<1988. 7. 27. 大阪大學 齒學部長(齒大學長)室에서 矯正學 講義를 마치고.>

앞줄 왼쪽부터: 黃金芳 北京醫科大學 口腔醫學院 矯正學教授(中國矯正學會會長), 劉侃上海第二醫科大學 口腔醫學院 口腔矯正科 主任付教授, 八木俊雄 大阪大齒學部長(齒大學長), 梁源植 教授

뒷줄 왼쪽부터: 作田守 大阪大學 矯正科長, 淵端 孟 齒學部 病院長>

단, 증례분석을 위해서 치료실에서 Chart기록도 전부 computer로 기록하고 있고, 과거 기초학교실에서나 가능했던 모든 실험과 연구가 임상과에서 직접 실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공의 교정학은 computer 도입에 의한 두개 방사선 계측사진 분석의에는 팔목할 만한 연구가 없고, 치료는 주로 가철식장치에 의한 치료수준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국가경제발전 일변도로 산업에 관련된 분야에 치중한 경향이 있으나 기초학문의 연구와 의학분야 중에서도 치의학 연구는 너무 소외되어 왔다고 인정되며, 국제간의 경쟁에 이기려면 치의학 분야의 교수와

대학원 수준의 학생을 해외에 많이 유출시켜 첨단적 연구를 습득시켜서 치의학 학문과 기술의 해외수출까지가 요망된다고 역설하였다.

◎ 88년 하반기 치과 의사 보수계획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1988년도 하반기 보수교육을 각 지부단위로 실시중에 있다.

서울지부에서는 중구, 용산구, 구로구, 강동구, 은평구, 종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성동구, 성북구, 강남구 등이 교육을 실시하며 지방에서는 인천, 경북, 제주 등이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7월호 학술분야소식 참조바람)

단국치대 치위생과 위생복 발표회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과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6월 9일과 7월 2일에 동교 천안캠퍼스 인문학과 대극장과 서울 세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위생복 발표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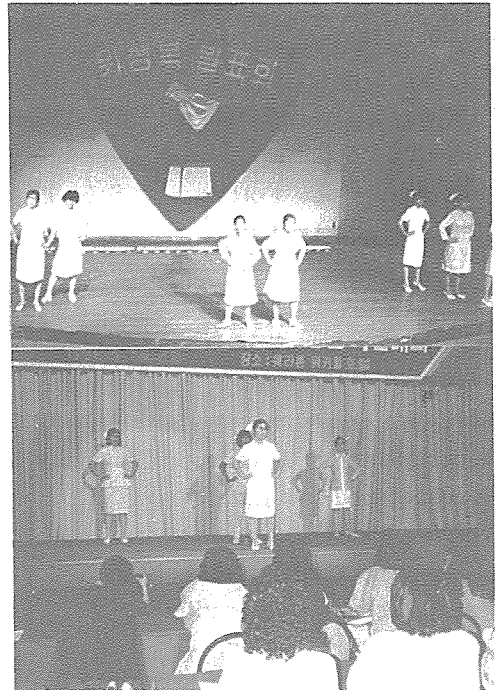
치과진료에 일익을 담당하는 치위생사로서 현대감각에 알맞는 진료에 임하고 국내외의 진료복장에 대한 흥미와 감각을 익힌다는 취지 아래 열린 이번모임은 이재현 학장의 끊임없는 격려와 신승철 치위생학과장의 적극적인 지도 아래 여러치위생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한 치과위생협회의 후원과 함께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번모임은 치위생사들의 높은 자질과 의상에 대한 감각,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섬세함을 마음껏 선보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2회라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세련된 모습들을 엿볼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많은 위생사들은 자신의 동료들이 무대에서 각종의상과 동작들을 연출할때 마다 아낌없는 박수로 발표회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회가 거듭될수록 더욱 성숙되고 알찬모임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려움이 더운 여름

날씨와 합쳐져 그들이 흘린 땀은 배가 뻐지만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진리 아래 사랑, 봉사, 박애정신으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자부과 긍지에 가득찬 모습을 보여, 많은 치과인들의 갈채를 받았다.



〈위생복 발표회 장면〉